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13차 협약 체결

‘완주·전주 원예 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공동 추진... 농가 부담 경감·원예농업 활성화 ‘기대’ 김 지사 “중단 없는 상생협력사업 통한 상생과 협치 강조·공동발전 위한 도 차원 지원 약속”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13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차 협약 이후 한 달여 만에 13차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 협력사업의 보폭을 지속해서 넓혀 가고 있다. 이로써 도와 함께 양 시·군이 발굴해 추진하기로 한 상생 협력사업은 모두 28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13차 협약에서는 ‘완주·전주 원예 농가 공동 선별비 지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 원예농협에 소속되어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완주군 원예 농가는 전주에서 제공되는 공동 선별비, 물류비, 출하 수수료 등 일부를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완주군 원예 농가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원예 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 선별비, 물류비, 출하 수수료 등을 원예 농가에 일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원예 농업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13차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이번 협약까지 총 13차례 협약 체결로 5개 분야 28개 사업(문화·체육·관광 10, 지역경제 6, 도로·교통 4, 안전·환경 5, 농업·교육 3) 총사업비 1,752억 원을 투입하

여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9월, 12차 협약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중단없는 상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

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력사업은 원예 농가의 공동 선별비, 물류비, 출하 수수료 등 일부 지원을 통해 양 지역 원예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예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도 더 많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상생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달라”며,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해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접한 완주군의 원예 농가에 공동 선별비 지원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전주·완주의 원예산업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양 지역의 원예산업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이번 상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13차 상생 협력사업은 전주 계약재배 완주농가의 품질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으로 완주군 원예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회장 정운섭)는 도내 호우피해 지역에 전달해달라며 한우곰탕 3,000개를, (사)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회장 이남균)에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돼지고기 3,100kg를 전북자치도에 기탁했다.

한우·한돈협회 회원들, 나눔 실천 앞장

한우곰탕 1700만원·돼지고기 30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사)전국한우협회 전북자치도지회(회장 정운섭)는 도내 호우피해 지역에 전달해달라며 한우곰탕 3천개(1,700만원 상당)를, (사)대한한돈협회 전북자치도협의회(회장 이남균)에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돼지고기 3,100kg(3,000만원 상당)를 전북자치도에 기탁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과 정운섭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진택섭 부회장, 그리고 이남균 (사)대한한돈협회 전북자치도협의회장, 김정기 부회장, 김성두 사무처장, 김송규 진안군지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효경 모금사업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호우피해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주민을 위로하

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한우협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에게 ESG 지역사회 공헌나눔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기부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돈협회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추진하게 됐다.

한우협회 전북지회는 현재까지 장학금과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통해 7억 원을, 한돈협회 전북협의회는 소외계층 지원과 한돈 나눔행사, 장학금 기부 등 13억 원을 매년 전북자치도를 통해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 나눔행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관에게 따뜻한 온정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원봉사센터,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전략 워크숍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난 28일부터 29일 1박 2일간 2026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선포에 맞춰, 자원봉사의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자원봉사 공동행동 기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타 지역 및 유관기관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여 자원봉사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니콜 시릴로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자원봉사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 차원의 자원봉사 공동행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와 자원봉사 전략이 글로벌 자원봉사 트렌드와 긴밀히 연계되기를 바라며,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새만금 고용특구 발전방향 포럼 개최

고용부·유관기관 50여 명 참석... 새만금 고용특구 발전방향 논의 고용특구 인지도 제고·공감대 확산... 미래산업 인력수급 전망 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제64조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포럼을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고용특구의 미래 발전 방향과 인력수급 방안을 논의하고, 고용특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지청과 군산고용지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새만금 고용특구의 실질적 운영 방안과 발전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에서는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계획과 주요 과제’를 주제로 지역산업경제연구원의 주무현 원장이 발표

했다. 주 원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인력 수요 전망에 따라 생산직 인력 수요가 전체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경제적 합리성과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특구 지정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우수 인력 확보와 중·저숙련 인력양성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인력 정착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정책과제로는 민·관·산·학 협력 기반의 TF팀 설치, 세부 실행계획 추진 로드맵 구축, 그리고 새만금 투자 유치 기업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해 한국형 렉스타트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새만

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도내 부처 간 협력체계도 함께 제시했다.

토론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영우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장기영 연구기획팀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재경 과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 최재경 과장은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인력 매칭과 숙련 인력양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산업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택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토론 내용을 새만금 고용특구 발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 재임명

안정적 조직 운영·경영성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출연기관인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제2대 원장에 서양열 현 원장을 재임명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서양열 원장과 새롭게 선임된 비상임 임원(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원 선임은 사회서비스원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격사유 조희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이 행했다.

이번에 재임명된 서양열 원장은 초대 전북 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재임명되었다.

신임 이사진은 학계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 각 영역별 현장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되었으며, 회계 전문가인 회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출연기관인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제2대 원장에 서양열 현 원장을 재임명했다.

계사 및 세무사가 감사진에 포함되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의 임기는 2027년 10월 27일까지 3년이며,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2년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